튼튼한 안보 바탕 남북관계·비핵화 모색

한·미, 한·중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구상

日 극우파 아베 등장 한·미·일 공조 과제

대북·외교·안보 기조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공식 일정 첫날인 20일 성김 미국대사와 장신썬 중국대사를 잇달아 면담한 것은 한반도 주변의 통일·외교·안보 환경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박 당선자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선거는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급변하는 가운데 치러졌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우리가 처한 안보현실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줬고 동북아 역내 갈등과 세계 경제위기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제게 주신 소명은 바로 이런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가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튼튼한 안보와 신뢰외교를 통해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열겠다는 국민 여러분과의 약속, 꼭 지키겠다"며 "올바른 역사인식을 토대로 동북아의 화해·협력과 평화가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즉, 튼튼한 안보와 당사자 간 신뢰를 기본으로 하는 통일·외교·안보정책을 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를 위해 박 당선인은 일종의 컨트롤타워인 가칭 '국가안보실'을 신설해 통일·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하겠다고 공약했다.

박 당선인은 남북관계의 해법으로 '신뢰 회복'과 '비핵화 진전'을 제시하고 있다. 이른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 방안이다. 구체적으로는 서울과 평양에 '남북교류협력사무소'를 설치하고 보건·종교·학술 분야를 중심으로 사회문화 교류를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남북 간 신뢰가 쌓이고 북한의 '비핵'이 진전되면 국제사회까지 참여하는 대규모 경제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개성공단 국제화·지하자원 공동개발, 나진·선봉 등 북한 경제특구 진출 등이 대표적인 경협 프로그램이다.

문제는 북한이 별다른 '비핵화'의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면 박 당선자의 구상도 이명박 정부의 '선(先) 조건 충족 후(後) 관계개선'의 구도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따라서 현재의 긴장관계를 풀어낼 수 있는 다른 대북정책이 요구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동북아 정세도 중대한 도전 과제다. 박 당선인은 세계 양강(G2)인 미국과 중국에 대해서는 한미관계를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강화하고 중국과의 관계는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동북아 외교에선 '한·중·일 트로이카 협력'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극우 성향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자민당 총재가 내각을 이끌게 되면서 한미일 3각 공조는 위협을 받을 공산이 크다. 새로 출범한 중국의 '시진핑(習近平) 체제'와 미국의 '오바마 2기 행정부'와의 관계 설정도 변수다. 결론적으로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과 외교적 노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는 지적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오후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에서 성김 주한 미국대사를 접견하고 있다. /연합뉴스

외교 윤병세·국방 김장수 핵심 브레인

외교·안보, 국방 인맥

박근혜 당선인의 외교·안보, 국방 분야의 인맥은 박 당선인의 '싱크탱크' 역할을 해온 국가미래연구원 소속 인사들이 주축이다.

참여정부 때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정책조정실장, 외교통상부 차관보,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지낸 윤병세 전 수석이 대선 캠프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외교통일추진단 단장을 맡아왔다.

윤 전 수석 밑에서 실무를 사실상 총괄하는 최대석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장은 7~8년 전부터 박 당선인의 자문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국가미래연구원 창립 전부터 박 당선인을 도왔다.

학계 전문가들도 눈에 띈다.

류길재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와 홍용표 한양대 교수는 대북 정책, 이정민 연세대 교수와 유현석 경희대 교수 등도 외교·안보 분야에서 깊이 관여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박 당선인 측 관계자에 따르면 추진단에는 30명에 가까운 외교·안보, 대북 전문가들이 포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관 출신으로는 김영목 전 뉴욕총영사가 외교안보 분야 특보로 활동했다.

당내 국제위원장을 맡은 김종훈 의원과 심윤조 의원도 외교관 출신의 새누리당 현역의원으로 대선 과정에서 맹활약했다. 길정우 의원도 현역 의원으로서 캠프 외교안보 분야에 참여했다.

국방분야 핵심 브레인으로는 국민행복추진위 산하 국방안보추진장을 맡았던 김장수 전 의원이 꼽힌다. 참여정부 마지막 국방장관을 지낸 김 전 의원은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악수하며 고개를 숙이지 않아 '꼿꼿 장수'라는 별명으로 잘 알려져있다.

참여정부 초기 군 수뇌부를 구성했던 남재준 전 육군참모총장은 국방안보 분야 특보로 활동하고 있다.

국방안보추진단에 참여한 군 출신 현역의원으로는 새누리당 황진하 정수성 한기호 김성찬 손인춘 송영근 의원이 있다.

이 밖에 추진위원으로 한민구 전 합참의장과 이성출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김영후 전 병무청장 등 군 출신 장성들이 다수 참여했다. /연합뉴스

오바마 "당선 축하…동맹 강화 기대"

러시아 대통령·캐나다 총리 등 각국 정상들 잇단 축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각국 정상들이 잇따라 박근혜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축하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각) 박 후보의 대통령 당선이 확정된 직후 성명을 내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선거 승리를 축하한다. 중요한 양국 및 지역, 국제 현안에서 한국의 새 정부와 폭넓은 협조 관계를 더 향상시키고자 긴밀하게 협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자체 웹사이트에 올린 언론보도문을 통해 푸틴 대통령이 박 당선인의 국정 활동 성공을 기원하면서 새해 인사도 함께 전했다고 밝혔다.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은 러-한 양자 관계의 성공적 발전을 언급하고 여러 분야에 걸친 협력 강화를 위해 박 당선인과 적극적으로 공조할 준비가 돼 있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도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박근혜 후보가 승리해 한국의 첫 여성 대통령이 된 것을 축하한다"고 밝혔다.

하퍼 총리는 "수교 50년을 맞는 캐나다와 한국은 G20(주요20개국)과 같은 국제무대에서 역동적인 관계를 구가하고 있다"며 "박 당선자와 계속 협력해 양국 관계를 강화하고 심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이날 유엔본부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새 한국 정부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종행기자 golee@·연합뉴스

박, 미·중·일·러 주한대사 연쇄 면담

한반도 정세·공조 방안 논의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20일 주한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대사와 연쇄 면담을 갖고 한반도 주변 정세와 정부간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박 당선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에서 당선 축하인사차 자신을 예방한 성 김 주한 미국대사·장신썬 중국대사·벳쇼 고로 일본대사·콘스탄틴 브누코프 러시아 대사와 각각 비공개 면담을 가졌다.

4강 대사들은 이 자리에서 박 당선인에게 각국 정부를 대표해 축하인사를 전했고 박 당선인도 한국과 이들 국가와의 전통적 우호협력 관계를 재확인하면서 올 들어 새로 출범한 각국 정부의 성공을 기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당선인은 특히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따른 동북아 안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주변 4강과의 협력과 공조가 긴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당선인은 성 김 대사와의 면담에서 자신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축하성명에 감사를 표시하면서 지난달 재선에 성공한 오바마 대통령에게도 축하를 보냈다.

장신썬 중국대사는 면담에서 박 당선인에게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시진핑 당 총서기의 친서를 전달했다.

장 대사는 축하인사 후 박 당선자를 '중국 인민의 오랜 친구'라며 "훌륭한 지도력 아래 한국은 더 발전할 것이고 양국의 동반자적 협력관계도 큰 발전을 이룰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후진타오 주석은 지난 10년간 정치를 훌륭하게 이끌어왔고 시진핑 총서기는 제가 2005년도에 한국서 뵙고 유익한 대화를 나눈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기차표/항공권/승선권
국제선 할인항공권 판매
(주)대원여행사
062)526-7000
신세계백화점 사거리
www.daewontour.com
광주역 062)525-4835
후원 : 한국관광공사 강원권협력단

광주⇔하이원스키장 셔틀버스 매일운행
출발지및시간 염주체육관(03:00)-신세계백화점 건너편 육교밑(03:05)-문화예술회관 정문 육교밑(03:10) 출발-하이원스키장 도착(07:40)
하이원스키장 밸리스키하우스 주차장(16:30) 출발 - 광주도착(21:30)
교통비 성 인 50,000원 어린이 : 40,000원(당일왕복)
셔틀버스이용자 특전 하이원스키장 리프트권 / 스키렌탈 / 보드 렌탈 (주중-60%/ 주말-50% 할인 혜택드립니다)
예약방법 : daewontour.com(대원여행사)에서 직접 예약하시면 됩니다

세기보청기
세기의 무대는 세계입니다!
탁월하지 않으면 세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세기보청기는 누구도 따라 올 수 없는 완벽한 기술력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이제 세기보청기가 여러분을 행복 속으로 모시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
세기스타·세기보청기
www.segistar.co.kr

전국 점망
서울 삼일로점(탑골공원 삼일로 입구):02)2276-0687-9 강남점(강남고속터미널 옆):02)3477-5110 종로2가점(금강제화 옆):02)733-0220 송파점(석촌역 2번 출구):02)419-3388 신풍점(신풍역 2번 출구):02)985-1838 경기 안양점(구.시민회관 옆):032)421-2288 부평점(부평역옆):032)517-5110 수원점(남문 옆):031)246-5110 의정부점(포천로터리 총국생명 옆):031)821-6655 안양점(롯산소동2001 아울렛 옆):031)469-0110~1 평택점(평택역 앞):031)658-5110 동인점(동인네거리):031)336-1090 오산점(국민은행 2층):031)378-4183 부천점(롯데백화점 옆):032)329-4400 남양주점(평내 호평역 옆):070)8829-9903 부산 서면점(서면로터리):051)818-8800 서면시점 818-0016 남포동점(부민극장 옆):051)256-7200 울산 울산점(공업탑로터리):052)268-2283 경남 마산점(마산역 옆):055)297-6000 진주점(중앙로터리 옆):055)745-9870 대구 동인점(동인네거리):053)425-4440 삼덕점(삼덕네거리):053)426-1511 남양동점(이카데미극장 옆):053)425-7575 경북 포항점(죽거리):054)244-5110 안동점(구.안동농고네거리):054)859-2248 광주 광주점(구.도청 옆):062)225-5110 광주점(백운광장):062)651-4477 전남 순천점(중앙시거리 지하상가입구):061)752-8845 전북 전주점(전북로터리):063)252-5728 군산점(구.시청정문 옆):063)446-0198 익산점(북부시장네거리):063)836-5600 남원점(시장네거리):063)632-2626 대전 대전점(도청 옆):042)254-5110 대전점(중촌로터리):042)222-3388 대전점(대전역 옆):042)255-4900 충남 천안점(천안역 옆):041)553-2888 공주점(공주큰사거리):041)852-5110 충북 청주점(명.파르르 구.속리산고속 맞은편):043)222-1177-8 충주점(삼원로터리):043)852-1414 강원 강릉점(옥천오거리):033)647-0586 춘천점(팔호광장 옆):033)253-5110 제주 제주점(광양로터리):064)753-4368

세계적 권위의 인증! FDA허가!
미국 식품의약국 FDA허가 인증 / 국제품질 ISO 9001인증 / 국제의료기품질 ISO 13485인증 / CE 0120 유럽공동체 CE마크 인증 / 의료용구 제조업체

상담전화
1588-8499/080-222-0100
세기보청기 대리점 사업본부 문의전화 02)538-9388

■광주 구)도청앞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2)225-5110
■광주 백운광장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2)651-4477
■순천점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1)752-8845